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 목표 초과 달성

분양률 86.1%...128개 기업 1929억 투자 성과 “많은 기업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될 것 기대”

목포시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쳐 대양산단 분양률 86.1%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목표인 85%를 초과한 수치로 총 128개 기업이 1,929억원을 대양산단에 투자하는 성과이며, 현재 90개 기업이 가동 및 건축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선7기 목포시가 3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을 선정하

고 다각적으로 육성한 결과, 도시경쟁력이 대폭 제고돼 대양산단 입주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내 1호‘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양산단과 신항이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펼쳐 단지 내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들어설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어지도록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성과의 일환으로 2024년까지 약 390억원이 투입되어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상풍력 기자재 부품 생산 연관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단 내 약 3만㎡ 부지에 총 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된다. 여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마른김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며 지역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 유치 40개사와 취업 유발 1천430명, 생산 유발 2천235억원과 더불어 부가가치 창출 734억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실시해 산단 분양률을 대폭 향상하며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했다.

목포시는 이 여세를 몰아 2021년 말까지 대양산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식품 수출단지, 해상풍력 플랫폼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대양산단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2020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영암 도포 이기열 명인, ‘최우수상’

신품종 부문 수상

영암군은 지난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도포면 이기열 명인이 신품종 부문에서 ‘창조’ 품종으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 홍보, 소비활성화로 과수산업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과수농협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기열씨는 계피, 당귀, 감초 추출액 등을 가미한 한

방액비를 직접 제조 사용하는 친환경적 과원관리와 생산자·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기열 한방배’라는 브랜드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영암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육성 신품종 배 재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수상으로 ‘영암배’가 최고품질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최고 품질 명품과일 생산을 향한 농업인의 사명감과 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며 고품질 ‘영암배’ 생산을 위해 인공수분용 우량꽃가루 및 정형과 생산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우수 지자체’

무안군은 환경부가 주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무안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0개 지자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조사와 자료분석 등 지방유역환경청 1차 평가와 환경부 2차 및 종합평가로 실시하였다.

무안군은 폐수처리효율,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배출업소 관리 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 전국 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군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포상금 500만원과 향후 신규 사업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새우 양식사료 공동구매로 어가부담 줄여

새우양식조합과 협력해 생산비용 10억여원 절감

신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우양식조합(압해읍 소재)과 협력하여 새우 양식사료 공동구매를 통해 양식어가들의 생산비용 10억여원을 절감시켰다.

새우 양식사료 공동구매는 민선 7기 들어 새우양식산업 육성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실시(10억원 절감)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양식어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포당(20kg기준) 1,500원에서 많게는 4,500원까지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어가부담을 줄였다.

신안군의 새우 양식사료는 연간 6~7천여톤을 사용, 120~130억원(양식경영 전체 소용 비용의 40% 차지)

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번 공동구매를 통한 절감액은 전체 양식사료구입 비용의 8%에 달한다.

특히, 올해 공동구매는 참여어가들의 요청에 의해 새우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함량에 주안점을 두고, 양식초기부터 사료 제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양식단계별 맞춤형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어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안군은 작년도부터 공동구매에 참여한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인센티브(사료구입액의 5%)를 지원하여, 일괄 적립토록하고, 양식어가들의 공동구매 참여확산과 함께 자체(생산자단체) 자조금 조성을 유도

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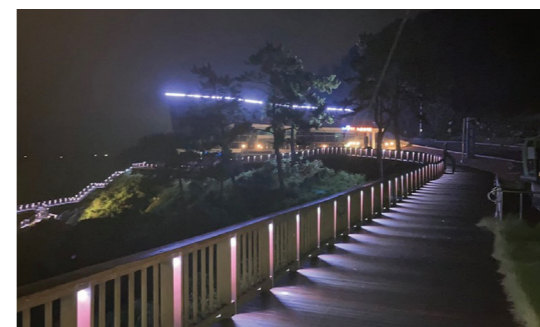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우 양식사료 공동구매에 참여한 어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년에도 양식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제부터는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2차 가공(간새우 등) 등을 통한 신안 왕새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더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양식새우의 주산지인 전년도 기준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72어가(894ha)에서 4,200여톤 생산, 왕새우양식 사상 첫 600여원을 달성했다.

기동취재본부

“백수해안도로, 야경보러 놀러오세요”

영광군, 특색있고 아름다운 야경 위한 경관조명 설치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과 그 주변에 대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대표 관광지인 백수해안도로 경관개선의 일환으로 야간경관 개선 특별교부세 150백만 원을 확보, 노을전시관 및 주변 산책로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경관조성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번 경관조명 설치로 그동안 야간에는 보고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웠던 백수해안도로 야경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한편, 영광군은 지역주민 및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지속적으로 설치 확대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